

지방의정 브리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방의회 연령 대표성 증진 방안

김정인(수원대 법·행정학부 교수)



I.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방의회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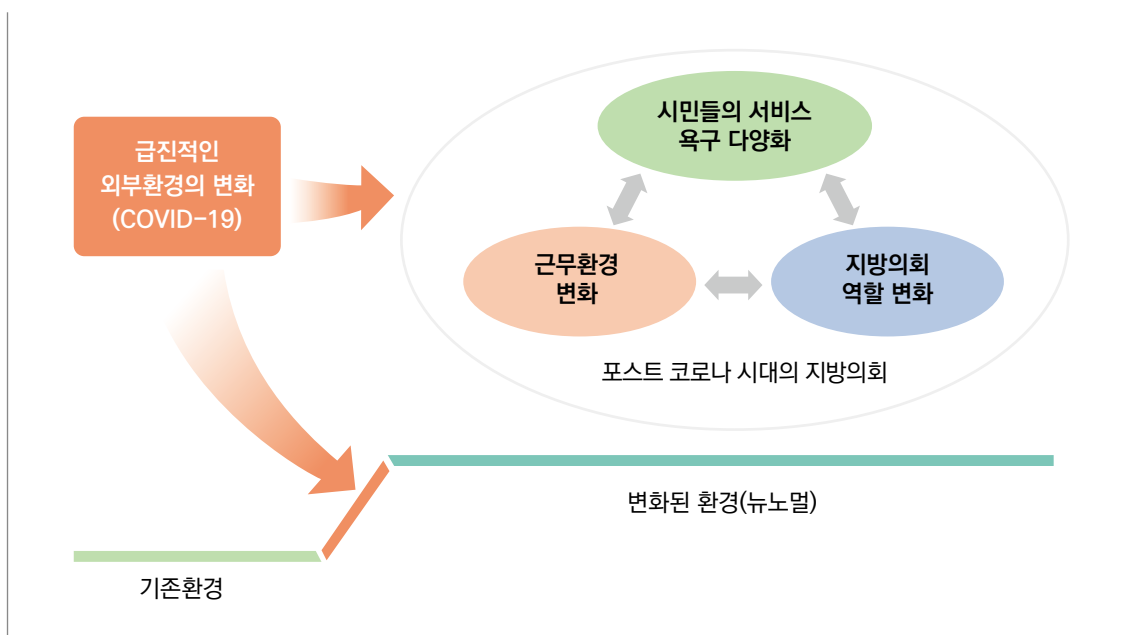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부기능과 역할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정부범위와 정부역량(힘)이 큰 강한 정부(strong government)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음
- 강한 정부는 단순히 정부규모가 크며 독점적이고 권위적인 정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시민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시민들과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역할을 증대시키는 정부를 의미(박광국·김정인, 2020)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속가능성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강한 지방정부 역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형성될 수 있음. 강한 지방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지원 및 견제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은 필수적임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방의회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 의견을 지방의원이 대표하고 반영할 수 있어야 함.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 갈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젊고 유능한 지방의원의 확보가 필수적임
- 하지만 한국의 지방의회는 광역·기초 모두 지방의원의 연령 대표성이 부족한 상황임. 특정 세대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젊은 세대의 지방의원은 과소대표 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요구됨(김정인, 2019)

〈그림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방의회 환경



II. 지방의회 연령 대표성 현황

• 젊은 지방의원의 과소대표

- 제 1회 지방선거부터 제 7회 지방선거까지 지방의원 연령 대표성 지수를 살펴보면 20·30대 지방의원은 광역·기초, 지역구·비례 모두에서 인구대비 과소대표 현상이 나타남. 40대 역시 대표성 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50대 지방의원의 과대대표

- 50대의 경우 광역·기초, 지역구·비례 모두에서 대표성 지수가 가장 높으며 타 연령대에 비해 과대대표 되고 있음. 50대의 사회적 지위와 위상을 고려한다 해도 지나치게 과대대표 되고 있음

〈표1〉 지방의원 연령 대표성 지수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제7회
30세 미만	광역	지역구	0.02	0	0	0.006	0	0.007	0.007
		비례	0	0	0.076	0	0	0	0.34
	기초	지역구	0.02	0.01	0.005	0.012	0.021	0.015	0.06
		비례	-	-	-	0.084	0.036	0.038	0.07
30-40 세미만	광역	지역구	0.72	0.65	0.41	0.37	0.27	0.15	0.30
		비례	0.33	0.35	0.67	0.57	0.59	0.23	0.73
	기초	지역구	0.61	0.54	0.35	0.36	0.31	0.21	0.39
		비례	-	-	-	0.49	0.47	0.29	0.40
40-50 세미만	광역	지역구	2.83	2.57	2.61	2.46	2.37	1.68	1.45
		비례	2.24	2.33	1.95	2.01	2.41	1.99	1.52
	기초	지역구	2.91	2.79	2.39	2.45	2.01	1.41	1.27
		비례	-	-	-	2.07	1.97	1.52	1.35
50-60 세미만	광역	지역구	4.73	4.72	3.91	3.52	3.08	3.31	3.10
		비례	4.84	4.45	4.11	3.11	2.76	3.18	3.22
	기초	지역구	4.87	4.43	4.26	3.56	3.38	3.43	3.15
		비례	-	-	-	3.43	3.15	3.44	2.92
60세 이상	광역	지역구	1.20	0.96	1.06	0.76	0.71	0.79	0.81
		비례	2.75	2	1.25	1.35	0.63	0.57	0.26
	기초	지역구	1.19	1.11	1.13	0.74	0.81	0.87	0.81
		비례	-	-	-	1.05	0.84	0.70	0.89

▶ 대표성 지수가 1보다 크면 과대대표, 1미만이면 과소대표. 자세한 논의는 김정인(2019) 참조.
출처: 김정인(2019).

Ⅲ.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방의회 연령 대표성 증진 방안

• 젊은 세대의 지방의원 확보 필요성

- 젊고 유능한 지방의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 나갈 사회 주역이 될 청년들의 정책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 젊은 세대의 소통창구로서 청년(20·30대) 지방의원 확보가 필수적일 것임
-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보건, 복지, 산업, 고용, 과학·기술 등 지역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미래 정책 수요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뿐만 아니라 지방의 인구소멸 위기 극복, 지방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 증진, 지역에 대한 관심 등을 이끌어내기 위해 젊은 연령층의 지방의원 수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로 가속화된 뉴노멀 시대의 세대 간 불평등과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 지방의원 확대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지방의회 연령 대표성 증진 방안

- 청년 지방의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광역과 기초 비례대표에 연령 할당제도(quota system)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지방선거 비례대표 청년할당제 도입은 지역 내 청년인구 수에 비례하여 청년 지방의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할 것임
- 또한 지역구 선거 공천에서 실효성 있는 청년 가산점제 도입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김정인 (2019). 소극적 대표성에 대한 재평가: 지방의원의 연령 대표성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3(3): 285-307.
 김정인 (2020). 「뉴노멀 시대, 위험과 정부 책임성: 안전사회 건설을 위하여」, 박영사.
 박광국·김정인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역할과 시민문화. 「한국행정학보」, 54(3): 1-30.

내용문의 : 김정인(수원대 법·행정학부 교수, jungink@suwon.ac.kr)

본 메일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ppbrief@krila.re.kr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